

현대퓨처넷 미디어아트 공모전

3rd H/ART AveNEW 최종 심사결과 안내

현대퓨처넷 미디어아트 공모전 《3rd H/ART AveNEW》에 관심을 보내주신 모든 지원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합니다.

■ 최종 심사결과 : 총 3인 선정

구분	작품명	지원자	창작지원금
작가 부문	도시의 녹색 환상	문소현	1,000만 원
	빛 돌 식물 (Light Stone Plant)	박재훈	1,000만 원
일반 부문	Micro Rhizome	변유열	700만 원

■ 심사경과

○ 단계별 심사 절차

단계	행정검토	(1차)서류심사	(2차)인터뷰 심사
내용	신청자격 검토, 필수 제출서류 확인	심사기준에 근거한 서류 심사	프리뷰 영상 송출 및 PT발표, 질의응답, 심사기준에 근거한 토론심사
일정	접수 이후 ~ 5.6 (화)	5.20 (화)	6.17 (화)

○ 심사위원

구분	성명	소속/주요활동 영역
1차 심사 (서류심사)	전동휘	파라다이스 세가사미 아트팀 디렉터
	이택진	아폴론이머시브웍스 대표
	이채영	백남준아트센터 학예운영실장
2차 심사 (인터뷰 심사)	백기영	모두미술공간 전시장 운영부장
	신보슬	토탈미술관 책임 큐레이터
	이관훈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디렉터

○ 심사 기준 ※ 서류 및 인터뷰 심사 기준 동일

항목	세부내용	배점
예술성	주제에 적합한 창조적 콘텐츠	30
전문성	실현 가능성, 구현 역량, 작품의 완성도	30
장소성	설치 예정 장소의 특성과 대중의 눈높이를 고려한 작품	40
합계		100

○ 심사총평

○ 심사일시 및 장소

- . 1차 심사 : 2025년 5월 20일(화) 14:00-18:00, 대안공간아트포럼리
- . 2차 심사 : 2025년 6월 17일(화) 15:10-17:10, 현대백화점 천호점

2025년 H/ART AveNEW 미디어아트 공모는 'Re.Green: 지속 가능한 지구'라는 대주제를 바탕으로, 도시 공간의 공공 미디어월을 매개로 예술과 사회, 기술과 감성의 접속을 실현하는 실험적 기획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한 본 공모는 일반 부문과 작가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총 6인이 참여한 2차 심사는 현대백화점 천호점 미디어 월에서 프리뷰 영상 송출과 인터뷰 심사를 거쳐 최종 3인의 작가(작가 부문 2인, 일반 부문 1인)를 선정하였습니다.

일반 부문은 영상 관련 산업 종사자 및 다양한 배경의 창작자들이 참여하며, 기존의 학생 부문에서 확장된 접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작품은 클라이언트 기반 제작 방식의 영향으로 일관된 미학적 태도나 작가적 문제의식을 도출하기 어려운 점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최종 선정된 변유열의 <Micro Rhizome>은 리좀 식물 구조를 디지털 알고리즘으로 시각화하였습니다. 이는 공모 주제와의 높은 개연성뿐 아니라, 시각적 밀도, 기술적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만, 미시적 생명 구조의 반복이 지나치게 단순화될 경우 단조로울 수 있어 후속 큐레이션 과정에서 프랙탈적 변화와 내러티브의 긴장감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가 부문에서는 4인의 작가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 중 문O현, 박O훈 두 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두 작가는 모두 각자의 예술 세계를 일관되게 구축해온 미디어 작가로, 이번 공모 주제를 단순히 수용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내러티브와 조화롭게 통합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문소현 작가는 어두운 정서의 작업 세계에서 출발하여, 식물군과 인공정원을 조형화한 '분더 캄머(Wunderkammer)'적 구성으로 확장된 제안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천호점 미디어월의 외벽 재질과 장소적 구조를 서사 도입부에 적극 반영한 점은 심사위원단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후반부 시퀀스에서 밝고 화사한 색조의 전환이 예고되어 있어, 조형적 균형을 갖춘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후속 영상 구성에 있어 과도한 복잡성을 지양하며 핵심 장면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큐레이션이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재훈 작가는 돌, 빛, 식물, 행성적 움직임 등 자연의 미세한 현상을 시적인 감수성과 결합하여 연출한 영상으로, 단순한 이미지 구성 속에서도 서사를 구성하는 능력이 돋보였습니다. 기존 작업에서 보여준 디지털 환상성과 생태적 감각이 본 작품에서도 유효하게 이어졌으며, 스크린 분할 상영이 요구되는 일부 전시장소에 맞춘 편집 구성이 향후 보완 지점으로 보입니다.

올해 공모는 심사위원들 간 다양한 해석과 판단의 조율 과정을 통해 수상작을 결정하였습니다. 주제인 Re.Green은 지속가능성, 생물다양성, 기후정의 등 여러 하위 의제를 내포하는 만큼, 예술가의 해석 여지를 풍부하게 제공하였으나, 일부 작품은 주제를 지나치게 직접적이거나 설명적으로 접근해 상상력의 깊이를 확보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최종 선정된 세 작품은 미디어월이라는 공공적 공간의 특성과 영상매체의 장르적 특수성을 함께 고려한 창작 접근을 통해, 시민들에게 환경과 생명의 감각을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큐레이션 과정에서 기술연출과 공간별 상영환경 조정이 함께 진행된다면 주제적 완성도와 기술적 몰입도 높은 작품으로 관객들과 조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1·2차 심사위원 일동 -

○ 향후 일정과 관련한 내용은 선정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문의 : 대안공간아트포럼리((artforumrhee@gmail.com)